

기아차 광주공장 장기근속 자녀 ‘세습채용’ 논란

노사 가산점 확대 우선채용 합의

“현대판 음서제”...법적분쟁 소지도

기아자동차 노사가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산점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진행중인 생산직 신규 직원 채용부터 적용돼 법적 다름 소지마저 불거질 전망이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공장지회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지부는 노사협상에서 생산직 직원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와 25년 이

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 한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기존에 1차 서류전형에서 장기근속자 직원 자녀 1명에게 10%를 줬던 가산점을 더욱 강화해 면접 대상자 선발 규모의 25% 이내에서 장기근속자 자녀를 선발기로 했다. 또 면접 점수(70점)와 시험 점수(30점)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치

러지는 2차 전형 때도 5%(3.5점)의 면접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총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아차 노조는 장기근속자 직원 자녀 1명에게 1차 서류전형 때 10%의 가산점을 줬지만 2차 전형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으며 기존의 가산점 부여 방식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 회사와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광주공장을 비롯한 3개 공장에 채용된 생산직 260여명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는 3~4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가산점 확대 방안은 곧바로 효력이 적용되며 회사는 당장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신규 채용 때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광주공장의 생산 규모를 62만대로 늘리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생산직 채용을 위한 원서를 지난 2월15일 마감했으며, 3만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노조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일자리를 세습하려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광주지역 한 대학졸업생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고 무었냐”며 질타했다.

갑작스런 가산점 적용으로 법적 분쟁 여지도 떠오르게 됐다. 지원자 입장에서 채용 공고 당시와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광주공장지회 관계자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다만 지부의 통보를 받았을 뿐 광주공장지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 설명할 처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음서제(蔭敍制) = 고려·조선때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



무등산 금요 직거래장터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12일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도시 소비자의 정보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이날 개장 자리에서는 미니리 등 불철 나물 특판전, 한우 및 돼지고기 소비촉진 할인 판매, 딸기와 토마토 등 과일 특별 할인전 등 다양한 특가 행사를 펼쳤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창업기업 10곳중 6곳 3년내 폐업

신규사업자 90% 1인 기업...창업의 질도 저하

우리나라의 창업 활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또한 저조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창조형 창업이 없다’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을 내놓으며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신규사업자/가동사업자)은 2011년 사상 최저수준인 20.2%까지 내려왔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01년만 해도 28.9%였다.

신규사업자는 연간 100만에 달하지만, 2007~2011년 기준으로 58.6%가 창업 3년 안에 폐업했다. 신규사업자의 90.8%가 1인 기업으로 규모 역시 영세했다. 창업의 질도 나빠졌다.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바탕이 되는 지식 산업의 창업은 2011년 전체의 15.4%

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미국(34.4%·2007년), 독일(30.6%·20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제조업체 창업에서도 47.6%가 저기술 분야에 몰렸다. 첨단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제조업체는 13.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창업환경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창업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 의지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창업비용(신규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비용) 비율은 14.6%로 미국(1.4%), 일본(7.5%)보다 크게 높다.

조 연구원은 “창업 활력을 높이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창업펀드 등 창업 지원 자금조달 체계를 만들고 특허 등 지식 자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의 표명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4일 이팔성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1967년 우리은행 신입행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40여년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서 회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 금융기관의 말단행원에서 시작하여 그룹회장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지만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어운대 KB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과 함께 금융권 ‘MB맨’이자 금융시장 ‘4대전황으로’ 불리던 이 회장은 강 전 지주 회장이 최근 사의를 표한 이후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우리금융은 이번주 임시이사회를 열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회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해말보다 16만마리 늘어...광주·전남은 줄어

돼지 사육 마릿수가 사상인 최대 1000만 마리를 돌파하면서 ‘공급 과잉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 돼지 사육수는 1010만7000마리로 지난해 말보다 19만1000만마리(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어미돼지(모돈·母豚) 수가 줄지 않아 새끼돼지 출산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산지 돼지 값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면서 양돈농가들이 돼지 도

축 자제를 줄인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돼지 고기 1kg 가격은 지난 2월과 3월 3000원을 밑돌다가 최근 들어 서야 3600원 선까지 올랐지만 이는 평년의 절반 수준이고 양돈농가들의 손익분기점인 3800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 결과 돼지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4분기 404만마리에서 올해 1분기 402만마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설 명절의 영향으로 한우 도축수가 269만마리에서 271만마리로 늘어난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반해 한우와 육우는 전분기보

다 9만3000 마리(~3.0%) 감소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만6000 마리(0.9%) 늘었다.

육계 사육 마릿수는 7193만8000마리로 전분기보다 419만2000 마리(-5.5%) 감소했다.

이와관련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다행인 것은 광주·전남의 경우 영세 축산농가가 중심이돼 모돈 줄이기에 나서 전분기에 비해 사육 두수를 9488 마리 줄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 촉진운동과 유통 구조 개선이 효과를 내면 안정화 기조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H 국민임대주택 368세대 공급

보성 벌교읍에...임대료, 전세가 60% 수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가 14일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368세대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성회정지구는 36㎡ 230세대, 46㎡ 87세대, 51㎡ 51세대 등 총 368세대 4개동으로 구성되며 임대조건은 36㎡가 보증금 750만원·월임대료 7만2000원, 46㎡가 보증금 1300만원·월임대료 11만원, 51㎡가 보증금 1600만원·월임대료 13만9000원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60%~83% 수준이다. 단지 안에 상가와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유아 놀이터, 숲그늘쉼터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회정지구는 제석산의 쾌적함과 태백산맥 문화관의 여유를 담은 로하스타운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친환경 생태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 국도 2호선과 15호선이 지나고 목포~광

양 고속도로가 인접해 시내·외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벌교상고, 벌교(여)중, 시외버스터미널, 벌교시장, 읍사무소 등 교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4월15일)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자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36㎡ 및 46㎡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1순위는 보성군 거주자, 2순위는 순천·고흥·장흥·화순 거주자, 3순위는 기타지역 거주자)한다. 문의(062-360-3054, 3056).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하경제 블랙머니 사용처 끝까지 추적

국세청, 4일 착수 세무조사 228명부터 적용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2차, 3차 확인작업을 벌인다.

탈루한 소득이 또다른 음습적인 사업이나 부의 축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14일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를 복기해 보면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소득의 일부를 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려 부를 몰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세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조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 인까지 철저히 동시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통신통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허위비용계상을 통한 탈세가 발견되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같은 추적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4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13	26	28	32	34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69,327,171		11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8,177,496		40	
3	5개 숫자 일치		1,611,565		1,444	
4	4개 숫자 일치		50,000		73,911	
5	3개 숫자 일치		5,000		1,246,235	

금강보청기 디지털

Keumgang Digital Hearing Instruments

고가의 보청기 이제 직접 들어 보시고 구입하세요!

6개월 이내 분실시 무상 재제작

6·12·24개월 무이자 할부

EVENT 1

디지털 귓속형 보청기 이벤트가

4채널 **79만원**

6채널 **119만원**

EVENT 2

(귓속형) **【T】테크노시리즈2**

【T】시그마 4채널 4밴드 → **150만원**
~~190만원~~ ~~230만원~~

【T】베타 6채널 6밴드 → **200만원**
~~240만원~~ ~~200만원~~

【T】델타 8채널 8밴드 → **220만원**
~~300만원~~ ~~360만원~~

델타 추가팩 배터리를 200알 증정

이제 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심의번호 : 2012-GN1-25-0138 제조회 : (주)스타키코리아

지 금 바 료!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세요~

금강보청기

광주지역 특별할인 이벤트

광산점 942-3456

광주 시내, 백제약국, 5일장방면, 영광방면, 국민은행, 광산신협, 남주, 목포방면

북구센터 266-9960

북구청방면, 말배우시장, 금강보청기 북구센터 2층, 시내 중앙동방면, 말배우시장 사거리, 각화동방면, 동강대역, 북구 우리동명원, 은병원, 두암동방면

의대센터 233-5237

조선대학교 정문, 화순, 백운동, 산수동, 전대병원, 동구정, 일광로, 전대병원 토터리, 구노동정, 남동성당, 금강보청기

첨단점 971-3553

빅마트, 농협, 금강보청기 일광공원 안경원, 순덕고, 장교분봉, 남부대, 부영APT, 호반APT, 문암동